大田大學校 韓醫學硏究所 論文集
第8卷 第1號 1999年 9月 1日

伏羲八卦圖에 관한 硏究

尹暢烈*

Ⅰ. 緖 論

伏羲卦圖는 八卦圖와 六十四卦圖로 나누어지며 八卦圖는 다시 伏羲八卦次序之圖와 伏羲八卦方位之圖로 나누어 지고 六十四卦圖는 다시 伏羲六十四卦次序之圖와 伏羲六十四卦方位之圖로 나누어 진다. 이 네 卦圖의 由來에 대해 朱子는 "右伏羲四圖는 其說이 皆出於邵氏하니 蓋邵氏는 得之李之才挺之하고 挺之는 得之穆脩伯長하고 伯長은 得之華山希夷先生陳摶圖南者하니 所謂先天之學也"[2](복희씨의 앞의 네 그림은 그 설이 모두 소강절에게서 나왔으니 추측컨데 소강절은 이지재 즉 이정지로부터 전수받고 이정지는 목수 즉 목백장으로부터 전수받고 목백장은 화산의 희이선생 진단 즉 진도남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니 이른바 선천지학이다.)라 하였다. 또 朱子語類에서도 "先天圖는 傳自希夷하고 希夷는 又自有所傳하니 蓋方士技術은 用以修煉하니 參同契所言이 是也라"[3](선천도는 진희이로부터 전수되었고 진희이는 또 전수받은 곳이 있으니 대개 방사들의 기술은 이것을 사용해서 수련을 하였으니 참동계에서 말한것이 이것이다.)라 하였다. 이로보면 위의 네 그림은 道家로부터 儒家로 흘러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명명되어 있는 최초의 문헌은 소강절이 지은 皇極經世書이다. 따라서 위의 4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달은 사람은 소강절인 듯하며 이후 朱子가 周易本義에서 이를 인용함으로써 儒學者들 사이에서 일반화가 이루어졌다.

소강절이 위의 四圖에 대해 복희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易을 演易한 文王에 앞서 易을 創始한 최초의 人物이 복희씨이므로 그와 같이 명명한 듯하며 다시 先天之學이라고 한 것은 文王八卦圖를 後天之學이라고 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말이다.

여기서 先天이란 말은 태극에서 八卦와 六十四卦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와 自生의 의미가 들어 있고 後天이란 말은 창조된 八卦와 六十四卦가 變化하고 流行한다는 의미가 內包되어 있다. 醫易學의 이해를 위해서는 위의 卦圖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먼저 易圖의 바탕을 이루는 伏羲八卦次序之圖와 伏羲八卦方位之圖를 설명하고자 한다.

Ⅱ. 伏羲八卦次序之圖

1) 次序之圖의 由來

皇極經世書에는 伏羲八卦次序之圖가 伏羲始畫八卦圖로 小橫圖라고도 명명되어 있다. 이 그림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八卦가 生하게 되며 그 生한 八卦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러한 그림이 나온 배경에 대해 繫辭傳에서는 "易有太極하니 是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라"[4]하였고 邵子는 "一分爲二하고 二分爲四하고 四分爲八也라" 하여 一生二法으로 說明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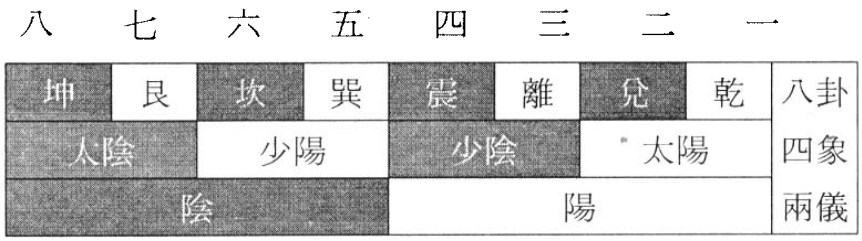
八卦의 由來에 대해서 繫辭傳에 仰觀俯察說이 소개되어 있고 또 孔安國과 劉歆 등은 河圖의 무늬를 본받아 八卦를 그렸다는 則河圖劃卦說 등이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2) 周易 元, 大田, 學民出版社, p. 93

3) 朱熹 著, 김상섭해설, 역학계몽, 서울, 예문서원, 1994, p. 87

4) 周易 貞, 上揭書, p. 371



伏羲八卦次序之圖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一生二에 의한 分派法은 천지만물의 근본이치인 태극이 動靜함에 의해 兩儀, 四象을 거쳐 八卦가 自然스럽게 출현하는 이치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朱子도 이에 대해 "此數言者는 實聖人作易自然之次第니 有不假絲毫智力而成卦라"[5]하여 터럭만치도 人爲的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自然法에 의하여 그려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인용한 "易有太極하니 是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이 生八卦"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주발생론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劃卦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주발생론적 입장에서 보면 易은 交易의 뜻이 있으니 이는 闔闢往來하는 것이다. 그런데 闔闢往來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太極의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太極의 이치가 作用하여 兩儀도 生하고 四象도 生하고 八卦도 生하니 이때 태극은 변화의 근본원리가 되고 兩儀는 天地가 되고 四象은 춘하추동이 되고 八卦는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의 여덟 가지 자연현상이 되는 것이다.

劃卦이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揲蓍를 통해 一획, 二획, 三획을 차례로 그려서 八卦와 六十四卦를 뽑아내어 吉凶을 점친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위 인용문의 바로 뒤에 "八卦定吉凶하고 吉凶이 生大業"이라는 문장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의 태극 개념은 만물창조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八卦, 六十四卦의 괘획을 얻는 최초 근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위의 두가지 설명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태극의 이치가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태극의 이치는 첫째 力動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에서 반드시 둘을 생하는 음양상대성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2) 太極

태극의 원리에 대해 朱子는 "天地之間에 只有動靜兩端이 循環不已오 更無餘事하여 此之謂易而其動其靜이 必有所以動靜之理焉하니 是則所謂太極也니라"[6](천지사이에는 단지 동정만이 순환하여 그치지 않고 있을 뿐이요 나머지 일이 없으니 이를 易이라고 한다. 그리고 動과 靜하는데는 반드시 동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이치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태극이니라)라고 하였다. 태극은 陰과 陽으로 分化할 수 있는 이치를 머금고 있는 본체자리이고 이것이 비로소 분화하면 陰陽이 되는 것이다. 朱子는 易有太極에서 말한 太極은 劃卦의 과정을 말한 것으로 "當未劃卦前하얀 太極이 只是一箇混論底道理로 裡面에 包含陰陽剛柔奇偶하야 無所不有"[7](卦劃을 그리기 전에는 太極이 단지 하나의 섞여 있는 이치로 속에 음양, 강유, 기우를 포함하여 있지 않는 것이 없다.)라 하였고 또 "太極者는 象數未形之全體也"라고 하였다. 태극의 글자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 臨川吳氏는 "太者는 大之至也오 極者는 屋棟之名이니 天地間之有此理는 猶屋之有極也라 易有大極은 謂一陰一陽之相易이 有理以爲之主宰也라"[8](太라는 것은 큰 것이 지극

5) 上揭書, p. 372

6) 周易 貞, p. 372

7) 周易 元. pp. 68 - 69.

한 것이다. 極이라는 것은 屋棟을 이름한다. 屋棟은 우리말로 마룻대라 하며 上樑이라고도 한다. 천지간에 이 태극의 이치가 있는 것은 집에 마룻대가 있는 것과 같다. 易有太極은 一陰一陽이 서로 交易하는 것이 이치가 있어 主宰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라 하였다. 太極은 陰陽으로 아직 分化하지 않았으므로 $2^0 = 1$ 이 되어 太極의 數는 1이 된다.

3) 兩儀의 分化

兩儀는 태극 속에 포함되어 있던 陰陽이 구체화되어 드러난 것으로 ― 은 陽이고 -- 은 陰이 되니 陽數는 一이 되고 陰數는 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象과 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兩儀에 대해 臨川吳氏는 "儀는 匹也니 一陰一陽이 相匹配而爲兩卦之第一畫也니 是謂兩儀라"[9](儀는 짝이다. 一陰一陽이 서로 배필이 되어 양 괘의 첫 번째 획이 된 것이니 이를 兩儀라고 한다.)라 하였다. 朱子는 "易有太極 是生兩儀"이 한 문장은 易之精이며 聖人作易之綱領이며 易의 開券第一義가 되며 易의 中心이 되는 골수가 모두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兩儀는 陰陽이 一次分化한 것으로 $2^1 = 2$ 가 되어 획은 하나이며 종류는 2개가 된다.

4) 四象의 分化

四象은 兩儀之上에 각각 一奇一偶를 生한 것으로 陽위에 一陽이 生하면 ⚌ 이 되니 陽中之陽이 되어 太陽 또는 老陽이라 하고, 陽위에 一陰이 生하면 ⚎이 되니 陽中之陰이 되어 少陰이라 하고, 陰위에 一陽이 生하면 ⚏이 되니 陰中之陽이 되어 少陽이라 하고, 陰위에 一陰이 生하면 ⚍이 되니 陰中之陰이 되어 太陰 또는 老陰이라 한다.

四象之位는 생겨난 순서에 의해 太陽之位는 1이 되고 少陰之位는 2가 되고 少陽之位는 3이 되고 太陰之位는 4가 되며 四象之數는 陽奇陰偶와 陽進陰退의 원리에 의해 太陽之數는 9가 되고 少陰之數는 8이 되고 少陽之數는 7이 되고 太陰之數는 6이 된다. 그리고 太陽之位 1과 太陽之數 9를 合하면 10이 되고 少陰之位 2와 少陰之數 8을 合해도 10이 되며 少陽之位 3과 少陽之數 7을 合해도 10이 되고 太陰之位 4와 太陰之數 6을 合해도 10이 된다.

兩儀가 나뉘어 四象이 되는 것은 兩儀를 太極으로 삼고 陽儀와 陰儀가 다시 陰陽으로 分化한 것이니 一分爲二하는 易有太極 是生兩儀의 太極陰陽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다. 四象은 음양이 2차 分化한 것으로 $2^2 = 4$ 가 되어 획은 넷이 되고 종류는 4개가 된다.

5) 八卦의 分化

八卦는 四象을 太極으로 삼아 각각 陰陽으로 分化시킨 것으로 太陽之上에 一陽을 生하면 ☰이 되니 乾이라 하고, 太陽之上에 一陰을 生하면 ☱이 되니 兌라 하고, 少陰之上에 一陽을 生하면 ☲이 되니 離라 하고, 少陰之上에 一陰을 生하면 ☳이 되니 震이라 하고, 少陽之上에 一陽을 生하면 ☴이 되니 巽이라 하고, 少陽之上에 一陰을 生하면 ☵이 되니 坎이라 하고, 太陰之上에 一陽을 生하면 ☶이 되니 艮이라 하고, 太陰之上에 一陰을 生하면 ☷이 되니 坤이라 한다.

따라서 八卦가 生한 순서는 乾一, 兌二, 離三, 震四, 巽五, 坎六, 艮七, 坤八이 되며 1, 2, 3, 4와 5, 6, 7, 8이 陰陽으로 等質, 等量의 대칭을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陰陽이 三次分化한 것으로 $2^3 = 8$ 이 되어 획은 3획이 되고 종류는 8이 된다. 이를 繫辭下傳에서는 "八卦成列하니 象在其中矣"라 하였는데 三畫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天地人三才之象이 간략하게 갖추어 지게 되므로 이를 小成卦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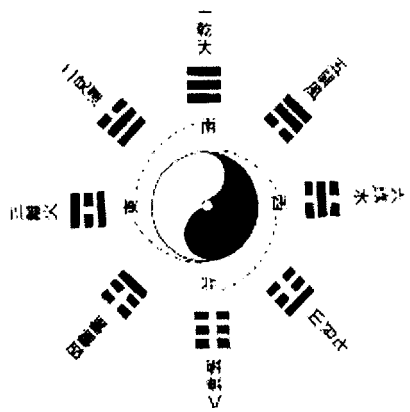
雙湖胡氏는 小成卦가 3획으로 이루어 지고 모두 8개로 이루어 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다음같이 이야기 하였다. "河圖洛書는 皆木數가 居東方하니 伏羲畫卦에 自下而上하니 卽木之自根而幹하여 幹而枝也라 其畫三은 木之生數也오 其卦八은 木之成數也라 重卦亦兩其三 八其八爾니 三八木數 大備而後에 六十四卦 大成 一六水 二七火 四九金 五十土가 皆在包羅中矣라 此春所以貫四時오 仁所以包四端이오 元所以統四德이니 大哉라 易也여 斯其至矣로다"[10](하도와 낙서는 모두 木의 數인 3과 8이 동방에 있으니 伏羲가 괘를 그릴 때 아래로부터

8) 周易 貞, p. 375
9) 上同, p. 375

위로 올라가니 바로 나무가 뿌리로 부터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 획이 셋으로 된 것은 木의 생수이고 그 괘가 여덟으로 된 것은 木의 성수이다. 重卦도 또한 三을 두배하고 八을 여덟 배 한 것이니 三, 八의 木數가 크게 갖추어진 뒤에 64卦가 크게이루어 지니 1,6水, 2,7火, 4,9金, 5,10土가 모두 가운데에 둘러 사여져 있다. 이는 봄이 四時를 관통하고 仁이 四端을 포괄하고 元이 四德을 통솔하는 것이니 크도다. 易이여, 이것이 그 지극하_도다.) 伏羲八卦次序之圖는 모두 네 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서 위로 太極, 兩儀, 四象, 八卦의 순으로 올라가는데 이는 雙湖胡氏도 말한 萬物이 自下上達하여 뻗어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Ⅲ.伏羲八卦方位之圖

伏羲八卦方位之圖는 皇極經世書에 또한 小圓圖라고도 되어있다. 伏羲八卦次序之圖가 八卦의 生成過程(見卦畫之立)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伏羲八卦方位之圖는 八卦가 어떻게 작용하여 萬物을 生成하는가(見卦氣之行)를 說明하고 있다.



伏羲八卦方位之圖

1) 方位圖의 由來

說卦傳에 "天地定位하며 山澤이 通氣하며 雷風이 相薄하며 水火不相射(석)하야 八卦相錯하니 數往者는 順코 知來者는 逆이니 是故로 易은 逆數也라"[11](하늘과 땅이 자리를 정하며 산과 물이 기운을 소통하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 부딪히며 물과 불이 서로 쏘지 아니하며 八卦가 서로 섞이니 지나간 것을 세는 것은 順하고 오는 것을 아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易은 거슬러 세는 것이다.) 하였는데 朱子는 邵康節의 說을 引用하여 이것은 伏羲八卦의 자리로 乾南坤北이오 離東坎西오 兌居東南이오 震居東北이오 巽居西南이오 艮居西北이라 하였으며 이어서 八卦相錯은 八卦가 相交하여 六十四卦를 이루는 것으로 先天之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天地定位는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에 자리를 정한 것이고 山澤通氣는 艮卦와 兌卦가 西北과 東南에서 서로 마주하면서 澤氣가 산에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니 이것이 山이 澤氣와 通하는 것이고 山의 泉脈이 澤에 흘러 泉도 되고 水도 되니 이것은 澤이 山氣에 通하는 것이니 두 개의 氣가 서로 通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臨川吳氏는 "天地定位者는 乾南坤北이니 上天下地니 定其尊卑之位也오 山澤通氣者는 艮西北兌東南이니 山은 根着於地하고 澤은 連接於天이니 通乎天地之氣也오 雷風相薄者는 震東北巽西南이니 雷從地而起하고 風自天而行하여 互相衝激也오 水火不相射者는 坎西離東이니 一左一右하야 不相侵克也라" (天地定位는 乾은 남쪽에 坤은 북쪽에 있으니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에 있어 尊卑의 자리를 定한 것이요, 山澤通氣는 艮은 西北쪽에 兌는 東南쪽에 있으니 山은 뿌리를 땅에 박고 澤은 하늘에 연접해 있는 것이니 天地의 氣에 통해 있는 것이요, 雷風相薄은 震은 동북쪽에 巽은 서북쪽에 있으니 雷가 땅에서 일어나고 風은 하늘로부터 행하여 서로 서로 부딪치는 것이요, 水火不相射은 坎은 서쪽에 離는 동쪽에 있으니 하나는 左側에 하나는 右側에 있어서 서로 侵犯하여 이기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또 數往者順과 知來者逆에 대해 朱子는 "起震而

10) 周易 元, 上揭書, pp. 61~62

11) 周易 貞, 上揭書. p.532.

歷離兌하야 以至於乾은 數已生之卦也오 自巽而歷坎艮하야 以至於坤은 推未生之卦也"라 하여 東北의 震에서 乾까지의 과정은 이미 생겨난 卦를 세는 것이고(乾一 兌二 離三 震四 의 順序로 生하므로 震의 段階에서는 앞에서 生한 것을 이미 알 수가 있다) 西南의 巽에서 坤까지의 과정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卦를 推理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易은 逆數也에 대해 易의 卦가 생겨나는 것은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으로 順序하기 때문에 모두 逆數가 된다고 하였다.

즉, 小圓圖의 自震至乾은 順이고 自巽至坤은 逆이며 小橫圖는 八卦가 모두 逆이라는 說明이다.

2) 方位圖의 構造

伏羲八卦方位之圖는 伏羲八卦次序之圖를 둥글게 배열한 것으로 乾坤이 定位하고 左右에 六子가 配列된 象이다. 이렇게 配列을 하면 陰陽消長의 차례를 살펴볼 수 있으니 震은 陽이 처음으로 坤과 사귀어 一陽이 始生한 것이고 離와 兌는 二陽이니 陽長이오, 乾은 三陽이니 陽盛한 모습이 된다. 巽은 陰이 처음으로 乾을 消하여 一陰이 始生한 것이고 坎과 艮은 二陰이니 陰長이오 坤은 三陰이니 陰盛한 모습이 된다.

進齋徐氏(名은 幾, 字는 子與, 號는 進齋, 南宋의 易學家)는 "一氣循環하야 自復至乾이 爲陽이니 生物之始也라 故로 震兌는 陰上而陽下하니 爲交泰之義이니 蓋主動而言이니 太極之用이 所以行이오 自姤至坤이 爲陰이니 成物之終也라 故로 巽艮은 陽上而陰下하니 爲尊卑之位니 蓋主靜而言이니 太極之體가 所以立也니라"[12] (한 氣運이 循環하여 復卦로부터 乾卦까지가 陽이 되니 萬物을 生하는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震,兌는 陰은 위에 있고 陽은 아래에 있으니 交泰의 뜻이 되니 動을 위주로 말한 것이니 太極의 作用이 행하는 것이요 姤卦로부터 坤卦까지는 陰이 되니 萬物을 成하는 끝이 된다. 그러므로 巽,艮은 陽은 위에 있고 陰은 아래에 있으니 尊卑의 자리가 되니 靜을 爲主로 말한 것이니 太極의 本體가 立하는 것이다) 라 하여 一氣의 作用이 左에서는 陽이 作用하고 右에서는 陰이 作用하는 原理를 밝히고 있다.

伏羲八卦方位之圖는 太極八卦圖 또는 太極卦圖 또는 兩儀卦圖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根據는 다음의 세가지로 살펴 볼수 있다.

첫째 子中에서 午中까지는 陽이 되는데 震離兌乾의 初四爻가 모두 陽이고 中爻의 前二爻는 모두 陰이고 後二爻는 모두 陽이며 上爻는 陰陽陰陽의 順序로 되어 있다. 午中에서 子中까지는 陰이 되는데 巽坎艮坤의 初四爻가 모두 陰이고 中爻의 前二爻는 모두 陽이고 後二爻는 모두 陰이며 上爻는 陽陰陽陰의 順序로 되어있다. 陽中의 中爻, 上爻가 先陰而後陽은 陽이 陰에서 生하는 理致를 나타내고 陰中의 中爻, 上爻가 先陽而後陰은 陰이 陽에서 生하는 理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陽과 陰의 初劃, 中劃, 上劃의 三爻가 等質 等量으로 완전한 대칭을 이룬 것은 太極이 兩儀를 生하는 象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둘째, 伏羲八卦方位圖는 마주 보는 卦가 완전한 陰陽의 調和를 이루고 있다. 즉, 上下에서는 乾父와 坤母, 左右에서는 離中女와 坎中男이, 斜對하여서는 兌少女와 艮少男, 巽長女와 震長男이 마주보며 陰陽의 調和를 이루고 있으므로 또한 太極卦圖라고 이름할 수 있다.

셋째, 乾陽은 南에 자리하고 坤陰은 北에 자리하여 陰陽이 북쪽과 남쪽에 자리잡고 있지만 "巽離兌가 雖爲陰卦而本乎乾體故로 位乎上하고 震坎艮이 雖爲陽卦而本乎坤體 故로 位乎下"[13]라 하여 陰根於陽하고 陽根於陰하므로 陰陽이 同妻하는 太極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方位圖의 作用

앞에서 伏羲八卦方位之圖를 太極八卦圖 또는 兩儀卦圖가 된다고 하였는데 太極이 兩儀를 生하는 것은 萬物生成의 基本原理가 되므로 이 卦圖를 先天圖라고 한 것이다. 萬物이 生하면 중심에서 밖으로 발전해 나가므로 方位圖는 中心에서 밖을 향해 初爻, 二爻, 三爻를 그려야만 한다. 이에 대해 朱子는 "圖必從中起者는 蓋萬事從心出之義"[14]라고

12) 周易 元, 上揭書. p.73.

13)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p.404.

14) 周易 貞, 上揭書. p.535.

하였다. 萬物을 創造하기 위해서는 天地自然의 基本環境이 具備되어야만 한다. 바로 萬物創造를 위한 大自然의 기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八卦圖가 伏羲八卦方位圖가 되므로 李正浩는 이 卦圖를 生卦圖, 第一卦圖, 原易圖라고 하였다.

이 卦圖의 四正方에는 不變卦(不倒轉卦)인 乾坤坎離가 配置되어 "天位乎上하고 地位乎下하고 日生於東하고 月生於西(초승달은 먼저 서쪽에서 나타난다.)"하여 不變하는 天地日月이 자리잡고 있다. 이중 특히 乾坤은 體가 되어 經이 되고 坎離는 用이 되어 緯가 되니 坎離의 功用은 左右의 門이 되어 變化의 중요한 軸이 된다. 이에 대해 思齋翁氏는 "卯爲日門이니 太陽所生이오 酉爲月門이니 太陰所生이니 不但日月이 出入於此라 大而天地之開物이 雖始於寅이나 至卯而門弸闢하고 閉物이 雖始於戌이나 至酉而門已闔하니 一歲而春夏秋冬과 一月而晦朔弦望과 一日而晝夜行度가 莫不由乎左右之門하니 所以極贊坎離功用之大也니라"[15](卯 즉 正東方은 日門이 되니 太陽이 떠오는 곳이오 酉 즉 正西方은 月門이 되니 太陰인 달이 뜨는 곳이니 단지 해와 달만이 이곳에서 출입할 뿐만이 아니다. 크게 보면 天地의 開物이 비록 寅에서 시작하나 卯에 이르러 門이 더욱 열리고 閉物이 비록 戌에서 시작하나 酉에 이르러 門이 이미 닫히기 시작하니 一年에서 春夏秋冬과 一月에서 晦朔弦望과 一日에서 낮과 밤의 運行度數가 左右의 門에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으니 坎離功用의 큼을 극찬하는 이유이다.)라 하여 坎離의 作用을 極讚하고 있다.

이 卦圖의 四間方에는 可變卦(倒轉卦)가 자리잡아 山은 西北에 자리잡고 (地理的으로 西北에는 山이 많다.) 澤은 東南에 자리잡고 (地理的으로 東南은 낮아 바다가 많다.) 風은 西南에서 일어나고 雷는 東北에서 動하여 東北에서는 陽이 主動的으로 上升하고 西南쪽에서는 陰이 收斂을 시작하는 自然的인 天地調和의 모습이 遺漏없이 나타나고 있다.

또 北方의 坤의 左右에 震과 艮이 자리한 것은 震의 우레는 땅으로부터 올라가고 艮의 山은 땅에 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南方의 乾의 左右에 兌와 巽이 자리한 것은 兌澤은 하늘과 연접해 있고 巽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므로 각각 乾坤의 좌우에다 配列을 한 것이다.

李正浩는 "第一卦圖는 八數圖로써 陽儀와 陰儀로 되어 있는 太極이며 萬物의 出生을 表示한다. 萬物이 出生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 順理이므로 머리를 象徵하는 乾이 먼저 生하고 (乾爲首) 다음 耳目鼻口手足(坎爲耳 離爲目 兌爲口 震爲足 巽爲易에 艮爲鼻 巽爲手)을 나타내는 坎離艮兌震巽이 次第로 나니 결국 胴體인 배(坤爲腹)가 나오게 되어 배를 상징하는 坤이 맨 끝에 와 있는 象이다."[16]라고 하였다.

結論的으로 말해 伏羲八卦方位圖는 陰陽이 消息하는 理致와 더불어 正陰正陽으로 對待以立體하여 乾坤이 體를 이루고 坎離가 用을 이루며 艮兌震巽이 作用하여 萬物이 創造되는 太極의 原理를 나타내는 第一卦圖이며 生卦圖이다.

4) 文王圖의 豫示

伏羲八卦方位圖는 乾一, 兌二, 離三, 震四, 巽五, 坎六, 艮七, 坤八의 숫자가 들어 있는 八數圖로써 一八易이라고도 부른다. 1에서 8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36이 되는데 洛書數인 45와 河圖數인 55를 향해 발전해가는 모습이 들어 있다.

또 이 卦圖의 마주보고 있는 卦의 숫자를 더하면 모두 九數가 나온다. 즉 乾一, 坤八,을 더해도 九가 되고 兌二, 艮七을 더해도 九가 되며 離三, 坎六을 더해도 九가 되고 震四, 巽五를 더해도 九가 된다.

다시 이 卦圖의 마주보고 있는 卦의 劃數를 더해도 九가 나오는데 乾三劃, 坤六劃을 더해도 九가 되고 兌四劃, 艮五劃을 더해도 九가 되며 離四劃, 坎五劃을 더해도 九가 되고 震五劃, 巽四劃을 더해도 모두 九가 된다. 이는 봄이 지나면 이어서 여름이 오고 萬物이 創造되고 나서는 자라는 과정이 이어지듯이 第一卦圖이며 生卦圖인 伏羲八卦圖를 이어 第二卦圖와 長卦圖에 해당하는 九宮圖인

15) 周易 元, 上揭書. pp.73 - 74.

16) 李正浩, 正易硏究, 1976. pp.11 - 12.

文王八卦圖의 出現을 豫示하고 있는 內容들이다.

Ⅳ. 結 論

伏羲八卦次序圖와 伏羲八卦方位圖에 관하여 硏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위의 두 卦圖는 진희이, 목수, 이지개를 통해 部康節에게 傳受되어 道家로부터 儒家로 흘러들어 간 것이며 朱子에 의해 儒學者들에게 普遍化되었다.

2. 伏羲八卦次序圖는 太極, 兩儀, 四象의 過程을 거쳐 八卦가 이루어지는 自然的인 理致를 밝혀주고 있으며 八卦가 生한 順序를 밝혀주고 있다.

3. 易有太極 始生兩儀는 兩儀, 四象, 八卦를 만들어가는 易의 核心綱領이 된다.

4. 八卦가 三劃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三, 八이 木이므로 木이 四行의 머리가 되는 理致가 內在되어 있다.

5. 伏羲八卦方位圖는 伏羲八卦次序圖를 둥글게 配列한 것으로 陰陽消長의 卦氣를 觀察할 수 있다.

6. 伏羲八卦方位圖는 萬物을 創造하는 太極八卦圖이며 第一卦圖이고 生卦圖이다.

7. 伏羲八卦方位圖는 天地가 上下에서 體를 이루고 日月이 東西에서 用을 하며 山澤과 雷風이 交流하여 萬物을 生하는 環境을 이루고 있다.

8. 伏羲八卦方位圖는 正陰正陽으로 對待以立體한 易之體이다.

9. 伏羲八卦方位圖는 數를 합하면 三十六이 되는데 이는 四十五數로 발전해 나가려는 의미가 있고 마주보는 숫자와 劃數를 더하면 모두 九數가 나오는데 이는 第二卦圖이며 長卦圖인 九宮圖의 出現을 豫示하고 있는 내용이다.

參考文獻

1. 李正浩. 正易硏究, 1976.
2.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3. 周易 元, 學民出版社, 大田.
4. 周易 貞, 學民出版社, 大田.
5. 朱熹著 김상섭 해설, 易學啓蒙, 서울, 藝文書院. 1984